

CCF 각국 대표 소개

Introduction of CCF Delegates



카롤린 & 위그 뒤부아 Caroline & Hughes Dubois

벨기에 Belgium
사진작가
Photographers

위그 뒤부아는 예술품 사진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앙 아프리카 왕립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시카고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 기관, 아트 갤러리 및 개인 컬렉션과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작품들을 렌즈에 담으며 원시 예술과 고전 예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습득한 위그 뒤부아는 35년 동안 38,000여점의 세계적 예술품들을 50,000여점의 사진으로 담았으며, 그 중 대부분이 157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 자체로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뒤부아의 사진들은 여러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였다. 카롤린 뒤부아는 다양한 언론 매체와 함께 잡지 패션·뷰티 화보촬영을 진행했으며, 후에 브랜드들의 문화 및 프라이빗 이벤트를 준비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를 설립하였다. 카롤린 뒤부아는 현재 유화와 개인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진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적인 '녹턴'은 비밀관성, 일시적인 추억, 찰나의 비전을 담고 있다. 카롤린 뒤부아와 위그 뒤부아는 보로부두르를 3년간 촬영한 바 있다. 밤을 암실로 사용하며 열린 하늘을 스튜디오로 변모 시켰고, 조명으로 형태를 만들어 장소의 리듬을 표현했다. 이 사진들은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보름달 아래의 보로부두르'라는 순회 전시로 발표되었다.

Hughes Dubois is recognized as a master of photography of art objects. He works for many of the world's leading museums, institutions, art galleries, and private collections, such as the Royal Museum for Central Africa, the Louvre and Art Institute of Chicago. He has had the privilege to have world masterpieces in his hands and lens, and acquired a deep knowledge of the Primitive and Classic Arts. He has taken a prodigious 50,000 photographs of over 38,000 masterpieces from all around the world for 35 years, most of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157 books. His photographs are artworks unto themselves, and have been recognized as such through multiple international prizes. Caroline Dubois worked with media groups to organize fashion and beauty photo sessions for magazines, and later created her communication agency to organize cultural and private events for brands. She now works on oil paintings and personal photography projects. Her project Nocturne's theme and purpose is inconstancy, the ephemeral trace of memory, and fleeting vision. Caroline and Hughes Dubois photographed the reliefs of Borobudur for 3 years. Using the night as a darkroom, they transformed the open sky into a studio, playing with the lighting to shape forms and find a rhythm that echoes the poetry of the place. These original photographs became an itinerant exhibition called 'BOROBUDUR UNDER THE FULL MOON,' which is under the patronage of UNESCO.

"우리는 전통과 현대 문화가 혼합된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문화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리이자 미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며, 문화는 국가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We are fascinated by the mix of tradition and contemporary cultures of Korea; the culture as a brid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a vision of the future. We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people and the culture is a wonderful medium to understand a country and its population."